

■ 베트남, 7월부터 철강수입관세 인상

- 베트남 재정부(MOF)는 오는 7월부터 그 동안 세계 철강가격 급등에 따른 철강 자재난으로 0%로 인하하였던 철강수입관세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시 인상키로 결정하였음.
- 베트남 재정부는 6. 15일자로 정부명령 53호(Decision 53)로 이전에 수입관세가 면제되었던 수입 선철(Pig iron)과 건설용 철재의 경우 각각 10%, 20%로 수입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 베트남 철강제조업협회(Vietnam Steel Makers Association; VSA)의 응웬 띠엔응이(Ngyyen Tien Nghi) 회장은 수입관세 인상이 저가품 수입을 감소시켜 베트남산 철강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.
- 이번에 베트남이 철강수입관세 인상을 결정한 것은 지난주 베트남 무역부가 철강수입관세 인상을 정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베 정부는 최근 몇 주간 베트남 철강내수시장이 침체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됨.
- 새로운 수입관세가 적용되면 현재 베트남 철강시장의 공급초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베 재정부 정책국장(Quach Duc Phap)은 전했다.
- 현재 베트남의 선철 수입가격은 톤당 400달러로 100불 이상 하락한 반면 베트남 철강내수시장가격은 톤당 20% 이상 떨어졌음에도 7백만 베트남동(약 446달러)에 이르러 수입제품과의 경쟁력이 없다고 VSA는 밝혔음.
- 베트남 공업부(MOI) 도후하오(Do Huu Hao)차관은 관세인상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의 공급과잉이 완화되어 국내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, 또한 하오 차관은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국내 생산을 늘려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음. 지난 2월 베트남은 국제 철강가격 급등으로 철강가격이 톤당 470달러까지 치솟자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를 0%로 낮추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.
- 그러나 국제 철강가격이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시장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다시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음.

(문의처 : 하노이무역관 정원준 waynech@kotra.or.kr)